

농식품부, 폭염 · 가뭄 대응체계 강화

농업인 · 외국인노동자 보호 강화... 온열질환 예방 · 긴급 급수 ·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까지 가용 자원 총동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적인 폭염과 남부지역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안전 확보, 농작물과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해 폭염과 가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폭염 관련 온열질환자는 361명(사망 5명)으로 집계됐으며, 가축제해보험에는 폭염으로 가축 68만8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신고됐다. 농식품부는 폭염이 지속될 경우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경기

도 가평군농협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냉방용품과 폭염 대응 가이드를 전달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폭염 피해 예방을 강조하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폭염특보 발효 시 상황회의 개최와 재난문자 발송, 행동요령 전파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일일 관리할 계획이다.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진도 폭염과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현장 예방 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산림청의 드론과 차량을 활용한 예찰 및 가두방송, 농촌진흥청의 온열질환 예방요원과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활용

한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폭염 대응 집중관리기간 동안 외국인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예방용품 비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을 대상으로 콜링조끼 3만 벌을 공급하고, 전국 지역 농축협의 무더위 쉼터 운영과 냉방용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교육과 다국어 안전수칙 안내, 마을방송, 문자 발송, 캠페인 등 홍보 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축산농가에는 냉방장비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열차단 도포제 등을 지원하고 긴급 살수와 급수를 확대한다. 농작물 분야에서는 생육 상황을 상시 점검하며 영양제 공급과 병해충 방제, 물 부족 지역 긴급 급수

지원을 추진한다.

남부지역 가뭄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저수지 물 채우기와 하천 굴착, 간이 양수장 설치, 이동식 양수기 운영 등 다양한 급수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차량을 활용한 긴급 급수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정 개발과 긴급 급수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도 추가 지원해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농작물과 가축,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현장 예찰과 점검, 캠페인 등을 더욱 강화하고 선제적인 가뭄 대책을 추진해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중기부,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 2031년까지 5년간 보호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되면서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오는 2031년까지 5년간 이어진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지정된 업종에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와 신규 진출, 사업 확장이 원칙적으로 5년간 제한된다.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사업자가 많은 업종으로, 지난 2021년 처음 생계

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올해 9월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이 이뤄졌으며,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과 시장 성장, 산업 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재지정을 결정했다.

다만 시장 성장세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 대한 출하 허용 범위는 일부 확대된다. 기존에는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출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또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이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 생산(OEM),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을 사용해 생산·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예외적으로 출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

AI 혁신 · 고객 중심 경영 강화

전북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지난 7일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박춘원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과 영업점장, 본부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경영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과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박춘원 은행장은 이날 회의에서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지금은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조직만이 성장할 수 있다”며 “디지털 AI 기반의 업무 혁신과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고객”이라며 “전북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동시에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은행장은 “고객 중심의 사고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임직원 모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7일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박춘원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과 영업점장, 본부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업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며 “기분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화에는 누구보다 민첩하게 대응하는 전북은행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전북은행은 이번 경영전략회의를 계기로 디지털 혁신과 고객 중심 경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중기청, 태풍 대비 무주반딧불시장 현장 점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은 다가오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무주반딧불시장을 찾아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풍에 따른 강풍과 집중호우로부터 상인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전북중기청 관계자와 건축·시설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상인회와 함께 시장 내 주요 시설물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지붕과 간판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비가림시설의 안전성을 살



폈다.

또한 배수구에 쌓인 낙엽과 퇴적물 제거 여부를 점검해 원활한 배수 체계를 확보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 방안도 확인했다. 아울러 기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의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을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도 점검했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폭염 비상대책회의... 추가 대응 방안 논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는 지난 7일 폭염 중대경보 확대에 따라 폭염 대책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폭염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긴급 투입한 1억2천839만 원 규모의 예산 집행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공사는 지난 6월부터 해당 예산을 활용해 생수와 이온음료 등 공용 물품은 물론 손전등과 냉풍조기 등 개인용 냉방용품 11종을 현장 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육체적 작업 강도가 높은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



감군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고, 작업 전후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폭염 중대경보가 예상되는 사업소에는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모든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실시간 소통체계를 유지해 응급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달부터 임원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폭염 장기화에 따라 폭염 취약지역 사업소를 다시 방문해 폭염 대응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남하영 사장은 “현장 직원들이 폭염 속에서도 국민의 전기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폭염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고창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교육 나서

(재)전북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는 지난 7일 고창군 해탈농영농조합법인에서 고창군 소재 식품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정착 지원 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고창)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고창군 주력 산업인 식품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출입국·이민 분야 법률 전문가와 유관기관 국제협력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